

# 다시 오월...5·18 진실 바로세우는 해로

## 40주년 맞아 역사왜곡처벌법 조속 제정·진상규명위 본격 가동 시급

###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정치권·정부가 적극 나서야

다시 오월이다. 올해로 40번째 맞는 5·18은 더 이상 왜곡·폄훼에 흔들리지 않고 한국 민주주의 등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않는 굳건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장, 5·18 민주화운동이 40년을 맞았지만 그날의 진상규명은 여전히 미흡하고 5월 정신을 흔들며 왜곡·폄훼하면서 피해자들의 상처를 해집어놓는 세력들도 여전하다.

올해 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할 때만 해도, 40년간 미뤄졌던 5월 영령들의 한(恨)이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도 컸다. 하지만 활동 속도는 지역민들 기대에 못 미칠 정도

로 더디기만 하다.

'코로나19'도 5·18 40주년 기념 행사들을 쪼그라들게해 5월 정신의 전국화를 위해 어느 해보다 풍성하게 계획했던 행사위원회 관계자들을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5·18의 진실을 흐리는 가짜 뉴스 생산·유포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5·18 역사왜곡처벌법'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며 지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지역민들은 40주년을 맞는 올해, 더 이상 5·18의 정신과 의미를 왜곡하거나 훼손해 역사적 판단을 흔들거나 흐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정치권과 정부가 보여줘

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5·18 역사왜곡처벌법의 조속한 제정, 진상규명위원회의 본격 가동을 통한 '완전한 진상 규명',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전문에 5·18정신 수록'의 약속이 이뤄지는 해로 만들어달라는 주문이다.

지역민들은 특히 올해 총선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여당이 압승한 것을 계기로 5·18 왜곡처벌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왜곡·폄훼 세력을 처벌하고 5·18의 진실을 바로 세우야 한다고 강조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18기념식에 참석, 약속했던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게 지역민들의 목소리다.

진상규명 조사위원회도 ▲민간인 학살

▲최초 발표와 집단발포책임자 규명, 계엄군의 헬기사격 규명 ▲국회 청문회(1988년)를 대비한 군 보안사 등의 '5·11연구위원회' 활동 규명 ▲집단학살지, 암매장지의 소재 및 유해 발굴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 ▲북한군 개인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사건 등의 진실을 조속히 밝혀내야 한다.

5·18 정신이 민주주의의 역사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불혹(不惑)'의 5·18에 걸맞은 희망을 심어줘야 한다는 것,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는 지역민들의 목소리이자,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 산화한 5월 영령들의 명(命)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엄마 차 몰래 운전한 여중생 처벌은?

#### 친족상도레 따라 무면허 운전만...동승 친구들은 특수절도죄

엄마 차를 몰래 운전하다 사고를 낸 10대 여중생과 친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친구 엄마 차로 알고 동승했던 10대들은 특수절도 혐의로 처벌받게 된 반면, 비상 키로 엄마 몰래 주차된 차를 운전한 딸은 '친족상도레'에 따라 특수절도를 제외한 무면허 운전 혐의만 적용받게됐다.

광주경찰청에서는 5일 무면허로 공항에 주차된 어머니의 차를 운전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로 A(14)양과 또래 친구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14)양은 지난 2일 밤 11시 20분께 광주시 광산구 신촌동 광주공항에서 면허도 없이 어머니가 차량을 가면서 주차해놓은 차를 가지고 나와 친구들과 번갈아 운전하면서 돌아

닌 것으로 조사됐다.

A양과 친구들은 서울 등지를 돌아다니다 지난 3일 밤 11시 40분께 경기도 북오산 IC 인근 고속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다른 차량과 교통사고까지 냈다.

경찰은 차량이 없어진 사실을 안 A양 아버지 신고로 하이패스 기록 등을 분석해 고속도로순찰대 협조를 받아 A양 등을 붙잡았다.

경찰은 A양의 경우 '친족상도레'인 점으로 무면허운전 혐의를 적용하고 나머지 또래 3명에 대해서는 특수절도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친족상도레란 4촌 이내 가족이 절도·사기 등 재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고소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하는 제도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두환의 518개 모습 5·18민주화운동 학살 책임자로 지목받는 전두환의 모습을 풍자한 작품 518개가 5·18 민주광장에 설치됐다. 5·18 제40주년문화예술회제추진위원회는 오는 12일까지 전씨의 모습을 풍자적으로 표현한 작품 518개를 전시하는 '518개 국제 표정전'을 개최한다. /김진수 기자 jeans@

### “검찰 직무수행 곤란 이유 송치의견서 비공개 위법”

#### 법원, 보험사 손 들어줘

검찰이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등의 이유가 있는 정보'임을 들어 경찰의 송치의견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 1단독 서효진 부장판사는 H보험사가 광주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H보험사는 지난해 9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건에 대한 경찰 송치 의견서를 공개해달라며 광주지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보험사가 고소한 해당 사건과 관련,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보험사는 관련 송치의견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었다.

검찰은 당시 관련법(정보공개법) 조항을 근거로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등의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또 보험사가 공개를 요구한 송치의견서의 경우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른 내부문서이며 검찰보존사무규칙이 정한 열람·등사신청 대상도 아니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당 정보 공개로 인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개되더라도 정보 내용과 수집 경로 등이 노출돼 향후 범죄 예방이나 수사수집, 수사활동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검찰사건사무규칙 및 검찰보존사무규칙은 행정규칙에 불과해 정보공개법에 따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해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5·18 추리 체험 프로그램' 즐겨요

#### 광주실천교육교사모임 개발

#### 방탈출 게임처럼 흥미롭게 제작

광주실천교육교사모임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5·18 민주화 운동 추리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했다.

광주실천교육교사모임에 따르면 시 교

육청의 지원을 받아 학생들이 직접 보고 느끼며 흥미롭게 참여할 '방탈출 게임' 형태로 제작했다.

방탈출 게임은 특정한 설정 속에서 퀴즈·문제 등을 풀어가며, 답을 찾아가는 레저 프로그램이다.

5·18 민주화운동 추리 체험 프로그램은 처음에는 학급 단위 진행을 위해 제작됐

으나, 코로나19 사태로 학생들이 집에 머무르면서 가족 단위 등 소규모 모임에서도 진행하기 좋은 형태(추리형 게임 형식 체험학습)로 개발됐다.

학생들은 단계적 미션 해결 등 능동적 체험학습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이해하고, 사적지에 남겨진 단서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해당 자료는 웹에 탑재돼 학생, 교사 등 누구나 쉽게 스마트폰을 통해 활용이 가능하다.

한편 광주의 5·18 사적지를 직접 찾

기 어려운 다른 지역 학생 등을 위해 스마트폰에서 영상과 자료를 제시받고 문제를 푸는 방식도 제공한다.

광주실천교육교사모임 관계자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교원·학생을 포함한 많은 사람이 '5·18 민주화운동 추리 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체험형 접근으로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 규명에 큰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5·18행사위, 15일까지 '오월공동체상' 후보 공모

'5·18민주화운동추진위원회'(5·18행사위)는 오는 15일까지 국내 개인·단체를 대상으로 '오월공동체상' 후보자를 공모한다.

5·18 40주년을 맞아 신설된 오월공동체상은 나눔과 공동체 정신인 오월 공동체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개인과 단체에게 수여한다.

이번 상은 1980년 5월처럼 차별과 불공

정한 일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개인·단체, 아픔과 고통의 현장에서 함께 손잡고 연대를 실천하는 개인·단체 등을 찾아 모두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이들을 활동을 오월정신과 함께 전파하고자 마련됐다.

5·18 행사위는 추천된 개인·단체의 활동상을 검증해 오는 27일 오후 5시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리는 부활제에서 시상한다. /정병호 기자 jusbh@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기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 시베리안 차기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